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2023. 11. 14.(화) 11:00 < 11.15.(수) 조간 > 배포 2023. 11. 14.(화)

건설업계와 건설기계 산업간 협력으로 새로운 수출 기회 찾는다

- 민관이 함께 해외 건설 수주와 국산 건설기계 수출 확대 연계방안 논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 이하 산업부)와 국토교통부는 11월 14일(화), ‘건설업계-건설기계업계 간담회’를 개최하여, 기계업계의 수출상황을 점검하고 중동 지역 등 새로운 시장 기회가 열리고 있는 지역의 업계 진출에 대한 정책 지원사항을 논의하였다.

산업부는 지난 10월 5일 수출 플러스 달성을 위한 9대 전략 사업(프로젝트)을 발표하였고, 특히 기계 분야에 대해서는 건설 특수상황을 활용하여 기계산업의 발전과 수출 촉진을 위해 국토부 등 관련 부처와 협력을 통해 강력히 추진키로 한 바 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업계 간 협업을 통해 건설사는 안정적인 건설기계 공급, 빠른 사후서비스(AS) 등을 통해 건설 일정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고, 건설기계업계는 수출 확대 및 인지도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아울러 중동 내 건설 수주 현황 및 조달 환경, 건설기계 요건(스펙) 등 수출 관련 정보를 교류하고, 해외 건설 시 한국 건설기계 활용 확대를 위한 협력 방식을 논의하였다. 산업부와 국토부는 논의과정에서 제기된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건설현장에 필요한 연구개발(R&D)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번 건설업계-건설기계업계 간 협력을 지속하고 구체적인 성과를 새로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부처 협력 사례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제조산업정책관 기계로봇항공과	책임자	과 장	조웅환 (044-203-4310)
		담당자	사무관	김민정 (044-203-431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참고 **건설업계-건설기계업계 간담회 개요**

□ **간담회 개요**

○ 일정/장소 : 2023. 11. 14(화) 14:00~ / 한국잡월드 1F 창의실

○ 참석자

- (정부) 산업부 제조산업정책관, 국토부 해외건설지원과
- (건설업계) GS건설, 두산에너빌리티, 코오롱글로벌, 삼성물산,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해외건설협회
- (건설기계업계) HD현대건설기계, HD현대인프라코어, 현대에버다임, 대모엔지니어링, 전진건설로봇, 한국건설기계산업협회

○ 주요논의내용

- 해외 건설 시 한국 건설기계 활용 확대 방안 논의
- 건설업계, 건설기계업계 상호 협력을 위한 업계간 자율협의

〈 건설업계 - 건설기계업계 상호협력 시 예상 이득 〉

건설업계	건설기계업계
▸안정적 건설기계 공급으로 건설 일정 관리 효율 제고	▸사전 수요 파악으로 생산 우선 배정 가능
▸건설공법에 부합하는 건설기계 확보로 건설 효율성 제고	▸건설 현장에서 필요한 R&D로 건설기계 경쟁력 제고
▸가격 경쟁력 있는 건설기계 확보로 건설 이득 확대	▸안정적 공급처 확보 및 수출 확대